

THE FACTOR OF PERSONALITY

H 팩터의 심리학

이기범 · 마이클 애쉬튼 지음

H 팩터가 높은 인간과 낮은 인간의 성격 탐구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과 거짓되고 탐욕스런 사람에게 내재한
H 팩터를 통해 본 인간 성격의 스펙트럼

• Extraversion

• Honesty-Humility

• Conscientiousness

• Openness to experience

• Agreeableness

• Emotionality

H FACTOR OF PERSONALITY

H 팩터의 심리학

이기범 · 마이클 애쉬튼 지음

H 팩터가 높은 인간과 낮은 인간의 성격 탐구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과 거짓되고 탐욕스런 사람에게 내재한
H 팩터를 통해 본 인간 성격의 스펙트럼

문예출판사

이기범 Kibeom Lee

성균관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산업심리학을 전공했으며, 캐나다 웨스턴온타리오대학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대학 심리학과 조교수로 재직한 바 있으며, 현재 캘거리대학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성격심리학 및 직업조직심리학 분야에서 왕성하게 연구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직업조직심리학 학술지(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부편집장이었으며, 지금도 몇몇 심리학 학술지의 편집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마이클 애쉬튼 Michael C. Ashton

토론토대학 심리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캐나다 웨스턴온타리오대학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브록대학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개인차와 성격(Individual Differences and Personality)》이라는 저서를 비롯해 성격심리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 논문을 출간했다. 《유럽 성격 학술지(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부편집장을 역임했으며, 여러 성격심리학 학술지의 편집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THE H FACTOR OF PERSONALITY

by Kibeom Lee and Michael C. Ashton

Copyright © 2012 by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2013 by Moonye Publishing Ltd.

This Korean edition is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Waterloo,

Ontario, Canada through Duran Kim Agency, Seoul, Kore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듀란킴 저작권 에이전시를 통해 저작권자와 독점 계약한 (주)문예출판
사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문예출판사
문
예
출
판
사

감사의 말

이 책을 출간하는 데 큰 성원을 보내주었으며 초고를 세심히 읽고 유용한 것들을 지적해준 동료들과 친구들, Derek Chapman, Gordon Hodson, Paul Tremblay, Reinout de Vries, Narnia Worth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이 책에 대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보내주신 Robert Mackwood, Taya Cohen, 그리고 익명으로 검토해주신 두 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분들의 통찰력이 더해져서 더 나은 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레곤 지역 표집에서 수집된 가히 놀랄 만큼 풍부한 자료 및 성격 어휘 자료를 무제한으로 공유하게 해주시고, 지난 몇 년간 인간 성격 구조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해주신 Lewis Goldberg와 Gerard Saucier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미국 대통령 성격에 대해 부가적인 자료를 보내주시고 그 내용을 이 책에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준 Steve Rubenzer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영문판 출간을 위해 온 힘을 쏟아준 윌프리드로리에대학교 출판사 편집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Rob Kohlmeier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편집을 해주었고, Leslie Macredie는 훌륭하게 마케팅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Ryan Chynces는 우리를 믿고 이 책의 출간을 결정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Matthew Kudelka는 뛰어난 실력으로 원고를 정리해 책이 더 쉽게 읽힐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책의 한국어판을 출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김상현님께 감사드립니다.

니다. 또한 이 책을 한국에서 출간하게 되기까지 많은 격려와 응원, 그리고 귀중한 조언을 주신 캘거리 인터넷 마당 모임과 캘거리대학교의 한인 친구들에게 감사와 우정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멋진 책을 만들어주신 문예출판사에 감사드리며 출간과 편집 전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신 박선미 님과 박유진 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기범은 지난 몇 년간 저녁 밥상에서 인간 성격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마다않고 들어준 아내와 두 딸의 성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끊임 없이 지원해주는 어머니, 형, 그리고 가족에게도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살아계셨다면 너무나 읽고 싶어 하셨을 이 책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마이클 애쉬튼은 항상 성원을 아끼지 않는 그의 모든 가족, 부모님, 여동생과 그녀의 가족, 그리고 아내의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내의 열성적인 지원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이 책을 그녀에게 바칩니다.

성격의 또 다른 차원, 정직성을 만나보세 요

혜원 씨와 지영 씨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둘 다 법조인이 되기를 꿈꾸며 법학 대학원에 다니는 젊은 여성이지요. 둘 다 중산층 가정에서 부모의 보살핌 아래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 두 여성은 여러 면에서 다른점이 많습니다.

혜원 씨에게 법을 공부한다는 건 마치 무술을 익히는 것과 같습니다. 복잡한 기술로 무장해서 상대방을 패배시키는 것이지요. 그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큰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을 공부하는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데 관심이 많고, 졸업 후 사법시험을 통과하면 국내 굴지의 법률 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인생의 1차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미 영향력 있는 법대 교수들이나 그분들의 법조계친구들과도 교분을 쌓기 위해 노력 중이지요. 물론 그녀는 나이답지 않은 처세술과 타고난 언변, 예쁜 외모를 한껏 이용합니다. 남들은 출세를 위한 아부라고 부르겠지만, 그녀는 졸업 후에 이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평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을 열등감에 사로잡힌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사회에 나가서 이들을 반드시 자기 밑에 굴복시킬

자신이 있지요.

반면 지영 씨가 생각하는 법 공부는 혜원 씨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녀는 현실보다는 이상을 중요시합니다. 지영 씨는 법이란 정의를 바로세우는 수단이라 생각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거나 공공을 위해 무언ಾಗಿ여하기 위해서 법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사회정의를 위해 힘쓰는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거나 약자를 위해 법률적 조력을 줄수 있는 위치에 서고 싶어 합니다. 지영 씨도 여러 교수님을 찾아가 질문을 하고 배우며 토론하는 걸 좋아하지만, 교수님 눈에 들기 위한 인위적인 행동은 그녀에게 너무 부자연스러운 것이라 전혀 내키지 않습니다.교수님의 재미없는 농담에도 크게 웃어주는 일 따위는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혜원 씨와 지영 씨 모두 미혼이고 언젠가는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원 씨의 장래 신랑감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명예로운 직업과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자여야 하는것도 빠질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녀에 걸맞게 스타일도 품격 있어야하지요. 조금이라도 처지는 구석이 있으면 일단 신랑감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지영 씨가 남자 친구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돈이나 지위는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녀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배우자의 집안이 부자인지 명문가인지 등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이런 걸 중요시하는 사람들과는 왠지 가까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지영 씨가 찾는 남자는 그녀가 지향하는 이상과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

정수 씨와 철수 씨도 비슷한 점이 많은 남성입니다. 둘 다 중년에 이른

기혼 남성이고, 동네에서 자동차 수리점을 하고 있지요. 둘 다 젊어서부터 열심히 일해온 탓에 사업상 꽤 성공을 한 편입니다. 그러나 혜원 씨와 지영 씨처럼 이들도 어떤 점에서는 180도 다릅니다.

이들은 사업 경영 정신이 서로 아주 다릅니다. 정수 씨의 사업 철학은 ‘잘못 구매한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다’입니다. 고객의 차량이 꼭 수리될 필요가 없어도 겹을 주어 고치게 하고, 겉에서 보이지 않는 부품은 중고 부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현금을 내면 깎아주겠다고 흥정을 하기도 하고, 현금 수입은 당연히 소득 신고에서 누락시킵니다.

반면 철수 씨는 고객을 속이거나 세금을 탈루하겠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필요한 수리만을 추천하고 언제나 영수증에 적시되어 있는 부품만을 사용합니다.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하고, 수입은 빠짐없이 신고합니다. 철수 씨는 고객이든 국세청이든 조금이라도 속이면 마음이 편치 않아서 더 괴로울 뿐이라는 교훈을 아주 오래전에 터득했지요.

정수 씨와 철수 씨는 둘 다 적극적인 성격이라서 여러 단체의 활동에 열심히 관여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스타일 역시 매우 다릅니다. 정수 씨가 지역사회의 작은 스포츠회 회장으로 뽑히자마자 한 일은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동네방네 알리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조직의 활동과 별로 관계없는 회식 비용을 조직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여기저기서 공로패를 받기 위한 로비에 많은 시간과 돈을 쓰는데, 이 역시 가능하면 활동비로 청구합니다.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신문 기사를 손수 작성해 정기적으로 동네 소식지에 기고하는 것도 일과가 되었지요.

반면 철수 씨는 그가 몸담고 있는 소년소녀 스포츠 재단에 많은 시간 자원봉사를 하지만, 그때마다 지출되는 비용은 주로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재단을 위해 많은 기부를 해왔지만, 그가 그렇게 해왔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철수 씨가 이 재단의 회장이 된 후에 기금이 많이 모였지만, 그 공은 언제나 다른 재단 관계자나 자원봉사자들에게 돌

아닙니다. 이렇듯 언제나 손해 보는 생활을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아내가 가끔 타박을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먹고살 만하잖아” 하며 동네 고깃집에서의 조출한 외식으로 아내를 달래줍니다. 물론 이럴 때면 그의 아내는 철수 씨를 지원하는 든든한 후원자로 어김없이 돌아오지요.

정수 씨와 철수 씨는 둘 다 결혼을 했지만 배우자 외에 다른 여성을 대하는 방식도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지난 몇 년간 정수 씨는 알고 지내던 주변 여성들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자기처럼 돈 많고 성공한, 그리고 건강하기까지 한 남자가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면 어딘가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철수 씨는 아내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도 남자인지라 다른 여성에게 매력을 느낀 적도 있고 그중 몇 명은 그에게 관심을 보인 적도 있었지만, 철수 씨는 아내에 대한 믿음을 배반할 수 없었습니다.

...

책을 시작하며 두 쌍의 인물을 소개한 이유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려는 어떤 성격의 반대되는 두 극단을 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혜원과 정수는 이 성격에서 한쪽 극단을 나타내고, 지영과 철수는 다른 쪽 극단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성격은 다름 아니라 정직성과 겸손성입니다.

정직-겸손성(앞으로 이 책에서는 정직성이라 줄여 부르겠습니다)은 인간이 지닌 수 많은 성격을 효율적으로 요약해주는 성격 요인 여섯 개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성격 요인 여섯 개에 대해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HEXACO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그것은 각 요인의 첫 알파벳을 따 조합한 것입니다. 이 요인들이 과연 어떤 성격을 나타내는지 이제부터 자세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책은 HEXACO 요인 중 재미있는 이야기거

리가 제일 많은 정직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정직성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심리학자들이 성격을 이루는 중요한 차원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요인입니다. 심리학자 대부분은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수많은 성격 특성이 단지 다섯 가지 요인 — 여섯 가지가 아니라 — 으로 아주 잘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다섯 가지 성격 요인은 5대 성격 요인(Big Five Factor)이라 불려왔는데, 이 요인을 받아들이는 이론을 심리학에서는 ‘5대 성격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성격 모델이 지닌 가장 큰 문제는 이 책의 주제인 정직성을 빠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5대 성격 모델로 인간의 성격을 개념화한다면, 위에서 묘사한 해원과 지영의 성격 차이, 그리고 정수와 철수의 성격 차이를 잘 구분해낼 수 없겠지요.

이런 차이를 잘 구분해주지 못하는 성격 모델은 매우 불완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직성은 삶의 여러 분야에서 실로 중차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직성은 사람들이 돈, 권력, 섹스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성격은 범법 행동이나 준법 행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한 이 성격은 우리의 정치적 이념, 사회정책에 대한 태도 및 종교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성격은 우리가 어떤 배우자나 친구와 사귀고 싶어 하는지에도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줍니다. 이 책은 이처럼 정직성이 어떤 방식으로 삶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는지를 재미있는 심리학 연구들을 소개해가면서 하나하나 설명해나가려고 합니다.

정직성이 이렇게 중요한 성격이라면,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심리학자들의 성격 모델에서 누락되어 있었는지, 또 2000년대 초반에 갑자기 정직성이 성격의 주요 차원이라는 주장이 대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지도 궁금할 것입니다. 이런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1부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정직성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기대하지 않았던 우연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90년대 중반, 필자들이 둘 다 성격심리학을 배우고 있던 대학원생 시절

에서 시작됩니다.

1부

성격심리학과 HEXACO 성격 모델

성격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수많은 성격 특성이 다섯 가지 광범위한 성격 요인으로 잘 요약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요인들은 '5대 성격'이라 불리며 학계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H 팩터', 즉 정직성 요인을 새롭게 포함하는 6-요인 성격 모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부에서는 새로이 제안된 HEXACO 성격 모델을 이 모델이 출현하게 된 뒷이야기와 함께 소개합니다.



1장

성격심리학의 잃어버린 고리, H팩터

1996년 여름 우리는 캐나다의 웨스턴온타리오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이전에 1년 정도 알고 지냈지만, 그해에 대학원생 사무실을 재배정하는 과정에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게 되었지요. 그 아름다운 웨스턴온타리오대학 캠퍼스에서 가장 볼품없던 사회과학 건물 8층, 그 사무실에서 우리는 3년간 대학원 생활을 함께하게 됩니다. 사무실을 같이 쓰자마자 우리에게서 공통 관심사가 아주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개인차 변수, 즉 능력, 태도, 흥미, 특히 사람의 성격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지요.

1990년대는 성격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고무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성격심리학으로서는 암흑시대라고 할 수 있는 70~80년대의 침체기에서 벗어나 인간 성격에 대한 연구가 서서히 회복되는 시기였습니다.

70~80년대에는 많은 심리학자들이 인간 성격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어렵없는 일로 생각하고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캐나다의 웨스턴온타리오대학은 성격을 공부하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던, 성격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꾸준히 발

전시켜온 교수님들(샘 파우넨Sam Paunonen이나 작고하신 더그 잭슨Doug Jackson)이 그곳에 계셨거든요. 따라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다양한 성격 차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데 대한 우리의 관심도 커져갔습니다.

5대 성격 모델의 등장

그 시절에 성격심리학에서 제일 잘나가던 이론은 5대 성격 요인 이론이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의 수많은 성격 특성, 즉 ‘가식적’ 성격에서부터 ‘희생적’ 성격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성격 특성은 결국 다섯 개의 큰 집단(또는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성격을 아주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다섯 가지 성격 요인에서 각각 어떤 수준을 보이는데만 알아내면 된다는 것이지요.

5대 성격 모델이 학계에서 자리 잡으면서 많은 성격심리학자들이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델로 인해 복잡하게만 여겼던 인간 성격을 아주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즉 성격의 5개 집단을 측정한다는 것은 거의 몇백 개에 달하는 성격 특성을 다 측정한 것만큼의 정보를 (큰 손실 없이)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론적 측면에서도 5대 성격 모델에 의거할 때 인간 성격이 지닌 의미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이런 개인차를 일으키는 원인 (생물학적이건 사회적인 것이건)이 되는지 또는 이런 개인차 변수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의 기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5대 성격 요인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지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칭으로 그 요인들을 간략히만 소개하겠습니다.

외향성(활달함 vs 수줍음)

원만성(친절함 vs 매정함)

성실성(규율적이고 치밀함 vs 게으르고 신중치 못함)

신경증(불안함 vs 평온하고 느긋함)

개방성(창의적임 vs 관습적임)

5대 성격 요인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 성격 유형이 **아니라** 성격 특성들의 모임입니다. 즉 이 세상에는 이런 다섯 유형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닌 것이지요. 5대 성격 이론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섯 가지 요인으로 측정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성격을 가장 잘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신체 유형은 매우 복잡하지만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그 유형을 꽤 잘 요약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1990년대 후반 우리의 대학원 시절로 다시 돌아가보지요. 그때는 5대 성격 모델이 맹위를 떨치고 있어서 여러 분야 심리학자들이 이 모델을 사용해서 연구하고는 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쓰고 있는 지금도 이 모델을 성격심리학의 주류 모델로 봐야 합니다.) 갑자기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모든 심리 현상을 5대 성격 모델로 이해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습니다. 우울증에서부터 직무 수행, 사회 동조에서부터 청소년 비행 문제까지 말이지요. 5대 성격에 대한 연구가 폭발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이 5대 성격 요인을 측정해주는 믿을 만한 성격검사지가 개발되었다는 점이라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립보건연구원의 심리학자들인 폴 코스타(Paul Costa)와 로버트 매크래(Robert McCrae)가 개발한 성격검사지가 성격 측정 분야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¹

¹ Costa & McCrae(1992).

우리는 성격 연구의 이론적 발전을 아주 재미있게 지켜보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점심을 함께 먹었는데, 이때 5대 성격 모델에 대해 많은 생각을 나누었지요. 그리고 이런 요인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왜 정확히 다섯 가지 요인이어야 하는가? 그때만 해도 이 이론에 대해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토론이 활발했거든요. 이런 토론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도대체 5대 성격이 애당초 어디서 나온 건지 정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그에 대한 많은 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5대 성격 요인이 누군가 ‘발명해낸’ 아이디어가 아니란 걸 금방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성격이 이 다섯 가지 성격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혼자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심리학자는 없었습니다. 그보다 5대 성격은 몇백 개에 달하는 인간 성격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연구하던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요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했지요. 즉 심리학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성격 특성을 측정한 자료에서 저절로 ‘드러난’ 요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대 성격은 도대체 어떤 연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일까요? 자, 이제 5대 성격 요인을 출현시킨 연구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인간 성격 요인을 이루는 기본적 차원을 발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인간이 지닌 아주 포괄적인 성격 특성을 목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과제가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성격심리학자들이 생각해낸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나와 있는 수많은 형용사 중 인간의 성격을 기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를 모두 추려내는 것입니다(물론 애매하거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흔치 않은 용어는 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용어들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의 성격을 측정하는 것이지요. 즉 ‘정직하다’, ‘부지런하다’, ‘활동적이다’와 같은 여러 특성 용어가 자신이나 자신이 잘 아는 타인을 얼마나 정확히 나타내주는지 5점 척도 또는 7

점 척도를 사용해서 반응해달라고 합니다. 예컨대 5점 척도라면 1은 ‘전혀 나타내지 못한다’, 3은 ‘중간 정도다’, 5는 ‘아주 잘 나타낸다’에 해당하겠지요.

사실 성격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방대한 경험적 자료에 근거해서 개발된 전문 성격검사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록에 제공해놓은 HEXACO 성격검사지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그 정도 정확성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성격 특성이 몇백 개에 달하는 다른 성격 특성과 어떤 관련을 보이는지를 계산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는 것이 지금의 목적인 까요. 개개인의 성격을 임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더 정교한 측정이 필요합니다. 3부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을 보고하는 데 상당히 솔직한 편입니다. 특히 연구를 목적으로 완전한 익명이 전제될 때는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거나 단점을 극소화하는 데 따른 득이 없으므로 매우 솔직하게 반응하게 되는 편이지요.

여러 사람을 상대로 성격을 나타내는 여러 용어에 대한 반응을 구했다면, 그다음에는 하나의 성격 특성이 다른 많은 성격 특성과 얼마나 강하게 관련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심리학자들 및 통계학자들이 오래전에 개발한 방법인 상관계수를 계산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상관계수에 근거해서 서로 관련을 보이는 성격 특성들이 과연 몇 묶음(즉 요인)으로 요약될 수 있는지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이때는 요인분석이라는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게 됩니다(상관계수와 요인분석에 대한 개념은 이 책에서는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아주 간략한 소개는 Scene 1-1에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성격 특성에 대한 요인분석적 연구를 1930년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들어 일부 연구자가 연구 결과들의 어떤 패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표집을 사용하든 공군 항공기 조종사 표집을 사용하든, 성격 특성 몇 가지를 측정한 뒤 이 자료를 사용해 요인분석을 실시하면 어떤 집단에서도 매우 비슷한 성격 특성 묶음 다섯 가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곤 했던 것이지요.

H 팩터의 심리학

지은이 이기범 · 마이클 애쉬튼

펴낸이 전병석 · 전준배

펴낸곳 (주)문예출판사

신고일 2004. 2. 12. 제 312—2004—000005호

(1966. 12. 2. 제 1—134호)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84—4

전화 393—5681 팩스 393—5685

이메일 info@moonye.com

블로그 blog.naver.com/imoonye

제1판 1쇄 펴낸날 2013년 7월 20일

ISBN 978-89-310-0744-2 93180

전자책 제작 빌드북

이 전자책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형사/민사상의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회의의 KoPub서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성격심리학 분야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았던 '정직과 겸손'이라는 H 성격 요인이 정치, 종교, 돈, 권력, 섹스 등 우리 삶의 여러 분야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생생한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한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지닌 다양한 성격의 진짜 모습을 알아차릴 수 있는 시야가 생긴다. 첫 만남에서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일까?'라는 인상을 받았어도 실제로는 아주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겉보기에 아주 성실하고 유쾌한 사람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타인에 대한 거짓과 탐욕을 일삼는 사람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독자 스스로의 성격을 파악해볼 수 있는 유용한 기회도 제공한다. 부정직한 사람이라면 책을 다 읽기도 전에 덮어버릴 테지만, 대부분의 독자는 자신의 성격이 어떠한지 투명하게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 삶에서 정직-겸손성이 높은 사람이 보여주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공동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어떠한지 깨닫고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교악한 성격의 소유자들과 더불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매우 실용적인 지침을 마련해준다. 누구나 반드시 읽어야 할 책.

— 데이비드 버스(《육양의 진화》, 《진화심리학》 저자)

충실하고 양심적인 사람부터 이중적이고 교활한 사람까지 이 책을 읽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그리고 틀림없이 주변 사람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게 될 것이다.

— 폴 실비아(노스캐롤라이나대학 교수, 《교수처럼 써리》 저자)

인간 성격 가운데 숨겨진 요인 H 팩터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성격심리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저술서

HEXACO
성격검사지
수록

이 책은 학문적인 방법으로 인간 성격의 심층을 해부하면서도 또한 학문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대중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친숙하게 내용을 풀어내고 있다. 사회와 문화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인간 성격과 윤리적 행동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밝혀냄으로써 성격심리학의 지평을 넓힌 신선한 성과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심각하게 조명되고 있는 ‘갑’과 ‘을’의 갈등에 숨은 심리학적 본질이 궁금한 사람, 혹은 그 문제를 슬기롭게 조율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꼭 이 책을 봐야 할 것이다. 이 책은 학문적 깊이 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인생과 세상에 대한 통찰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 설계의 단초들을 빼곡히 제시하고 있다.

— 이남석(지식소설가/과학 칼럼니스트, 《만행》 저자)

왜 어떤 사람들은 남을 이용하려 들고, 법과 규칙을 어기고, 비뚤어진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까? 세계적인 심리학자 이기범 교수와 마이클 애쉬튼 교수가 그 해답을 제시한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HEXACO 성격 모델을 어떻게 창안하게 되었는지, H 팩터가 어떻게 도덕, 정치, 종교, 섹스, 행복 등에 개입하는지 설명해준다. 원저자가 직접 마련한 이 한국어판은 어떤 심리학 번역서보다 쉽고 깔끔하게 읽힌다. 육각형의 다이아몬드 같은 책이다.

— 전중환(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오래된 연정통》 저자)